

## 의약분업이 무엇일까? II

### 7. 의약분업을 하지 않는 예외 사항이 있다고 하던데요?

다음과 같이 의약분업을 실시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의약분업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 1) 병·의원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

- 응급 환자·입원 환자
-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격리 수용이 필요한 제 1종 전염병 환자
-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현역 병·전투 경찰 순경·교정 사설 경비 교도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정 시설·소년 보호 시설·외국인 보호 시설에 수용 중인 자
- 장애인 복지법 등에 의한 1급·2급 장애인
- 파킨슨병 환자 및 한센병(나병) 환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한 자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장기이식 등 특수 질환의 치료와 결핵 예방법에 따라 국가 시책으로 결핵 치료제를 투약하는 경우

사회(의료) 봉사 활동으로서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의사 및 약사 모두 직접 조제가 허용하며, 보건소는 지역 보건법에 의한 '지역 주민의 진료 업무'에 대해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도시화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보건지소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예외로 하여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됩니다.

특히,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과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 8. 저희 마을에는 의료 기관(또는 약국)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국이 없는 지역과 의료 기관이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관리됩니다.

약국과 의료 기관이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지역 특성상 의료 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도서지역 등은 지방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해 복지부장관이 예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기관(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 지역에서는 지금과 같이 계속 약국(또는 의료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분업이 시행되더라도 예외 지역의 약국에 대해서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판매에 제한이 따르게 되므로 아무 약이나 함부로 사실 수는 없습니다.

### 9.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다 하는 건가요?

의약분업은 기본적으로 주사제를 포함한 전문 의약품에 대하여 실시하며, 소화제와 같은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약품을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할 전문 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아도 부작용 등의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사나 소비자가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의 특성상 의약분업을 적용하기 곤란한 다음 의약품에 대하여는 예외가 인정되어 의사가 직접 투약하거나 의료 기관 조제실에서 약을 타실 수 있습니다.

- 전염병 예방 접종용 약, 진단용 의약품, 희귀 의약품, 의료 기관 조제실 제제, 임상 실험용 의약품, 마약, 방사성 의약품
- 신장 투석용 및 이식성 등 투약 시에 기계·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
- 운반 및 보관에 냉동·냉장·차광이 필요한 주사제, 항암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주사제

또한 진단용 의약품 및 경구용 전염병 예방약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전문 의약품에 대해서만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모든 약에

대하여 의약분업을 하면 오·남용은 훨씬 줄어들겠지만, 이를 이용해야 하는 환자가 지나치게 불편하고 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지만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일반 의약품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언제든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10. 주사제도 의약분업을 하 나요?

의약분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나라의 주사제 사용은 심각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의료보험 진료 환자 중 주사제를 처방 받는 환자의 비율은 56.6%로 WHO 권장치인 17.2%에 비해 3배 이상 높습니다.

약국에서도 쉽게 주사제를 구할 수 있고, '주사 아줌마'라는 무자격자가 투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주사제에 대한 선호도가 대단히 높아서 심지어 의사에게 주사를 놔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사제는 먹는 약에 비하여 부작용과 독성이 생길 우려가 훨씬 크고, 약물 의존성도 높아 외국에서는 그 사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



에 포함시킬 경우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주사제를 구입한 후 다시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무엇보다도 의약품의 사용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다소의 불편은 예상됩니다.

다만 이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주사제, 운반·보관에 냉동·냉장·차광이 필요한 주사제와 항암제 등을 예외로 합니다.

한편, 응급 환자나 입원 환자에 대해서도 주사제를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주사제를 투약 받는 환자에게는 다음 진료일에 미리 주사제를 사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사전 처방 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11. 치과병원이나 한방 병·의원도 의약분업을 하 나요?

치과 병·의원도 의약분업을 합니다.

의약분업은 한방 병·의원과 동물 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의원에 적용되고, 치과 병·의원도 역시 의사에게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여야 합

다.

## 12.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도 보험이 되나요?

약국 의료보험은 폐지되지만,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하는 조제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에도 돈을 내고 약국에도 돈을 내고 하면 의료비용만 더 비싸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이 있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병·의원에 가면 내는 의료비(진찰료 + 약값)를 병·의원에는 진찰료만, 약국에는 약 값만 나누어서 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일반 의약품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의약분업을 하여도 현재와 똑같습니다. **㉞**